

칼럼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가정의 달인 5월에 사랑을 실천하자

신록이 우거진 푸른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사랑을 실천하는 달이다. 가정은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 속에서 살면서 보람을 찾는 사랑의 보금자리다. 사랑이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을 주는 생각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5월에, 5월 5일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제99회 어린이날, 5월 8일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제49회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제40회 스승의 날(RCY 57회), 5월 21일은 부부가 한 몸처럼 사랑하는 제15회 부부의 날이 있다.

새들은 짝짓기하면 알 낳을 둥지인 보금자리를 만들고 알을 낳아 새끼를 친다. 사람은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夫婦)가 되면 새로운 보금자리인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아 기르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며 산다. 가정에서 사랑을 몸에 익히지 못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 따라서 가정의 달인 5월에 사랑이 충만한 가정을 만드는데 부부가 같이 노력하고 이것을 자녀가 몸소

배우게 해야 한다. 가정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혈연 관계자가 모여 사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을 말하며 부부 자식 부모 등 가족이 공동 생활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이루고 이웃과 더불어 도우면서 살고 있다. 가정은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최소의 단위의 삶의 틀을 말하며 가정에는 인적 구성인 가족이 있고 가족이 모여 사는 물리적 주거환경인 집이 있다. 가정의 구성은 인위적 관계로 맺은 부부가 있고, 부부의 사랑의 열매라 할 자녀가 있다. 가정은 부부나 자녀로 이루어진 소가족이 있고, 한집안에 부모 자녀 조부모까지 어울려 사는 대가족도 있다. 사회의 변화와 직업이 다변화되면서 직장을 따라가는 관계로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되는 핵가족으로 발전하고 있다. 함께 산다는 것은 같은 주거 환경 속에서 같이 살며 같은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가정은 서로 돕는 부부의 사랑으

로부터 시작된 보금자리며 사랑이 없는 가정은 가정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가정에서 어린이는 부모의 사랑의 열매로서 희망이며 꿈이고 보람이다. 올해도 제99회 어린이날이 있는데 부모들은 어린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실천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날이 지나 맞이하는 제49회 어버이날에는 생존해 계시는 어버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어버이를 기쁘게 하고 돕는 일을 실천해야 한다. 나의 성장을 도와주시고 지식 기능 정보를 일깨워 주신 스승은 부모와 같아서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며 스승을 부모와 동격인 사부(師父)라고 한다. 제40회 스승의 날에는 사부인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며 스승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가 제자이면서 스승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내가 제자로서 사랑을 실천할 때 나의 제자들도 스승을 찾게 될 것이다. 제15회 부부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부부의 날은 부부관계의 소중

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취지에서 가정의 달인 5월에 '돌이 하나 된다.'라는 의미를 담아 '21일'로 정했다. 부부가 처음 맺어질 때 비록 남남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배우자로 선택했고 수많은 일가친척 친지 앞에서 부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서로 사랑하고 도울 것을 맹세하고 부부가 된 것이다. 이러한 부부가 처음의 아름다운 사랑의 약속이 차츰 잊혀 가는 것이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서로 이해하고 돕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부부의 불화가 사전에 차단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부부는 항상 부부로 맺은 혼인 서약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서로 믿고 도우며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행복한 가정은 부부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며 자녀는 효심의 사랑으로 부모에 보답한다. 우리는 가정의 달에 사랑을 배우며 실천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가정에서 사람이 결핍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므로,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 돕는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을 만드는 데 힘써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효도로 부모를 사랑하고, 스승과 제자가 존경으로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이 되었으면 한다.

기고

디지털 성범죄 시작은 무지함으로부터

전 세계는 스마트폰이 없어서는 안되는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범죄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성범죄이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불법 촬영과 불법 유포, 소비이다. 디지털 성범죄가 화두가 되기 전에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 불법 유포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모두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소비란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 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불법 촬영물이 사이버 공간에 만연하게 불법 유포되면서 그에 따라 불법 영상물을 무지하게 소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불법 촬영물 소비에 대한 별다른 처벌근거가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였지만 2020.5.19.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을 소비(소지·구입·시청)하였을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신설되었다. 이 같은 법의 공백과 불법 촬영물 소비에 대한 무지는 N번방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과 다양한 영상촬영기기로 인한 불법촬영물 피해는 사랑하는 내 가족, 연인, 친구 등 누구나 쉽게 피해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불법 촬영과 배포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소비까지도 근절하여 불법 촬영물에 대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불법 촬영물 소비에 대한 무지는 N번방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과 다양한 영상촬영기기로 인한 불법촬영물 피해는 사랑하는 내 가족, 연인, 친구 등 누구나 쉽게 피해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불법 촬영과 배포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소비까지도 근절하여 불법 촬영물에 대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불법 촬영물 소비에 대한 무지는 N번방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신고	18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2층 TEL (061) 905-2011 FAX (061) 905-2012

서율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FAX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주) 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안전속도 5030'

대한민국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천명대에서 최근 3천명대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곧 2천명대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OECD 국가 대비 높은 사망자 수와 교통사고를 기록하고 있기에 사망자 수 줄이기에 더 노력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은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안전

속도 5030" 정책을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안전속도 5030는 도심지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미만, 보호구역·주박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유지하는 정책이다. 도시의 사거리 등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우 높기에 이러한 정책은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효과는 실험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는데 시

속 60km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할 경우 사망 확률이 90%에 이르지만, 시속 50km에서 충돌시 사망 확률이 50%로 감소하고, 시속 30km에서는 10%까지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10km 속도제한의 차이로 도심의 교통체증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평균 이동시간이 2분 정도의 차이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착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사망자 수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소중한 생명

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급격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자동 제동장치 등의 안전장치, 교통 인프라 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으나, 그래도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안전할 수 있다면 그 생명의 가치는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이 잘 정착되길 바란다. **문소희/보성경찰서경무계 순경**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포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